

제 안 설 명 서

【울진·영주·당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안】

윤 옥 식 의원외 8인

울진·영주·당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2004. 2. 26.

제 출 자 : 윤옥식의원의외 8 인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경북북부지역은 1970년대 후반이후 이후 국가의 성장위주 개발정책으로 인해 크게 소외되어 왔으며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낮아 30여 년이 넘도록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토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80여만명으로서 수도권의 작은 도시 하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낙후지역이 되었기 때문임

특히 농촌이 무너지고 산업여건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두 개의 남북축의 고속도로와 고속철이 개통되어 더욱더 수도권과 중부권의 종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지금 우리나라는 국토의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남북성장에만 치우쳐 동서간의 개발격차가 심각한 실정으로 현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시급한 실정임

21세기 신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경북 북부지역의 수많은 우리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환동해권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수준의 관광지 건설과 함께 내륙과 해안을 연결함으로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함.

3. 제출처 :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울진~영주~당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문

우리 영주시는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 남쪽으로는 안동시와 예천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으로 접경을 이루고 있는 소·태백권의 교통의 중심지이며, 풍기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농축산물과 우리나라의 명찰인 부석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도시이자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도시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경북 북부지역과 더불어 개발지역에서 소외되어 산업이 침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 일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주시는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이 지역의 농축산물 유통 및 판로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진·봉화·영주·문경·천안·당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은 WTO체제 및 FTA 환경에서 우리 지역이 살아남고 수도권 및 경인·서해안지역과 물류의 수송로를 확보하여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 및 교류를 촉진하고,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경북 울진과 충남 당진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축을 중심으로 한 서울 및 수도권 위주의 도로건설 및 국토개발로 인하여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실정으로서 국토의 불균형개발을 심화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양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가능하며 경북 북부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과 농축산물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살면서 지금까지 개발지역에서 소외되어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으나,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건설로 남북 축과 동서 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을 구축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를 갖는다면 지금까지의 개발소외에서 비롯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농촌이 무너지고 산업여건이 극히 열악한 경북 북부지역에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이 동해안과 서해안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고, 주 5일 근무제 등 여러 가지 생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정 이미지의 우리 영주시를 비롯한 북부 11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경북 울진·봉화·영주·문경·천안·충남 당진간의 동서고속도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서해안과 수도권과의 활발한 교류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연계발전을 위하여 동서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4. 2. 26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